



독서에도 장비가 필요해

자고로 무슨 일이든 장비가 중요하죠. 책 읽기가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북커버부터 개성 넘치는 책갈피까지 독서가 즐거워지는 '꿀템'을 소개합니다.

취재 박선영 리포터 hena20@naeil.com

타이머와 문진

몰입을 도와주는 아이템

책에 푹 빠지고 싶다면 타이머를 사용해 보세요.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두면 책에만 몰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유혹에서도 자연스럽게 탈출할 수 있어요. 책갈피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감성템' 문진도 빼놓을 수 없죠. 크리스털, 우드, 메탈 등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실용성은 물론 분위기까지 제대로 살려 줘요.



자료 드레텍 스텝워치 인스타그램, 믹스처 인스타그램

북커버

표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내가 어떤 책을 읽는지 알려지는 게 부끄럽다고요? 세상의 모든 독서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영 신경이 쓰인다면 북커버를 사용해 보세요. 표지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책이 오염되지 않게 보호해줘서 공공장소에서도 나만의 독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면 소재를 선택하면 책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겨울엔 손이 한결 따뜻해요. 개성 넘치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취향에 맞게 골라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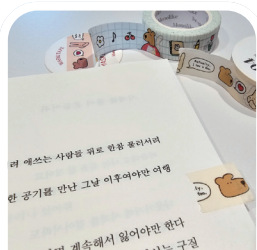
자료 슬로우스티치
인스타그램



이렇게 써보세요!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마음에 드는 책갈피가 없다면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보세요. 페이지 끝에 마주 보게 붙이면 개성 있는 책갈피 역할을 톡톡히 해요.



자료 커먼누브 인스타그램

책갈피

책이 구겨지는 게 싫다면

요즘 소품 가게나 독립 서점에 가면 독특한 책갈피가 정말 많죠? 덕분에 취향에 맞는 책갈피를 모으는 재미가 쏠쏠해요. 책을 읽다가 멈춰야 할 때 대충 페이지를 접거나 책 날개로 표시해두면 책이 구겨져서 불편하잖아요. 책갈피를 꽂아두면 얼른 다시 책을 펼쳐야만 할 것 같은 기분 좋은 부담감이 느껴질 거예요. 예쁜 디자인으로 눈이 즐거운 건 보너스!

인덱스 스티커

흔적 없이 밑줄을 긋고 싶을 때

요즘 독서할 때 인덱스 스티커를 쓰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고 어딘가에 적어두고 싶은 문장이 꽤 있거든요. 펜으로 표시하자니 너무 눈에 띄고 혹시라도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라면 더더욱 밑줄을 긋기 힘들죠. 이럴 때 인덱스 스티커를 사용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정리하기 좋아요. 여러 가지 색으로 구비해두면 원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



자료 도토리하비
인스타그램